



권 시장 “역세권 개발, 원도심 활성화 · 도시재생으로 이어져야” 강조

“대전역 활용 소규모 회의산업 활성화”

권선택 시장은 27일 오전 역세권 개발 사업이 예정된 대전역 동광장 일대에서 시정현안 현장점검 회의를 갖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회의에는 박희원

철도중사자음주 · 약물단속

국도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기관사 등 철도중사(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공사현장 감독)의 음주·약물사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도교통부 소속 철도경찰대는 ‘철도안전법’(제41조에 따라 열차 탈선, 충돌·추돌 등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철도중사자 음주·약물사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철도경찰대의 철도중사자에 대한 음주·약물단속은 ‘음주·약물복용 확인·검사업무지침’에 따라 경찰청의 음주·약물단속과 유사한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음주단속은 호흡기 측정으로 시행하고, 필요시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 하고 있으며 약물복용 검사는 철도사고가 발생하거나, 약물복용의 의심이 있을 경우 단속 장비로 측정을 하고 양성반응이 나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의뢰하고 있다.

철도경찰대는 음주·약물단속 장비의 정확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서 6개월마다 국가공인기관의 검정과 교정을 받고 있다.

철도중사자가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측정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국도교통부는 앞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행정처분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우선 철도중사자의 운전면허취소·효력정지 처분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 세분화(0.03%-0.06%-0.09%이상)하고, 처분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사고 뿐만 아니라 철도사고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음주·약물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태선 기자

대전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성욱 개발위원회 회장, 박재복 시민행복위원장, 이세영 명예시장, 정용길 정책자문위원, 박천보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권 시장은 1920~1930년대에 조성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철도문화유산(철도보급창고, 관사촌 등 근대문화유산 30여점 분포)을 간직하고 있는 대전역 인근 철도 관사촌을 직접 둘러보고 복원계획을 점검했다.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망대에 올라 역세권개발사업과 국립철



공주 알리기에 박찬호 · 박세리 나선다

제61회 백제문화제 성공 개최 ‘홍보대사’ 위촉

공주가 낳은 세계적인 스포츠스타 코리안 특급 박찬호(42)선수와 골프여제 박세리(38) 선수가 제61회 백제문화제와 세계유산을 품은 흥미진진 공주시를 널리 알릴 공주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공주시(시장 오시택)는 27일 오전 10시 공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시택 공주시장과 관내 기관·단체장, 모교 출신 학생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수와 골프 여제 박세리 선수를 공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보대사로 위촉된 박찬호, 박세리 선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세계에 알리면서 제61회 백제문

화제가 성공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백제문화제가 환감을 맞아 세계로 도약하는 역사문화 축제로의 발돋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두 명의 세계적인 스포츠스타가 함께 하게 돼 백제문화제의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큰 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찬호 선수는 이날 위촉식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가진 세계적인 역사도시에서 배우고 성장한 것이 자랑스럽기 짝이 없다”며, “고향 공주시가 세계인들에게 주목받는 도시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세리 선수는 “백제문화

공주=정상범기자



세종시 공사현장 관리감독 ‘엉망’

토사운반 차량적재량 초과 등 도로파손 · 비산먼지 우려

세종시의 아파트나 대형 상가 건물 신축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공무원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제때에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 및 도로파손에 예상돼 감독관청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공사현장의 반입차량이나 토사운반차량들의 지도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실제로 일부 공사현장에는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을 세척하는 세륜 시설도 없이 형식적으로 흙을 싣고 나르다가 하면 덤프트럭의 바퀴에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고 심지어 일부 현장에서는 세륜 시설을 설치해놓고도 바쁘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토사운반 차량이 적재량을 초과해 운반함으로써 도로파손과 비산먼지 발생 및 안전사고의 우려, 과다적재로 남의 일 자리를 가로채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에 대해 건설현장의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건설노동조합의 대전지부 A조직부는 “법이 준수되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그간 지드 된 프로그램들이 선별일 예정이어서 관광객들의 이목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백제역사유적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맞물려 새롭고 예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들이 선별일 예정이어서 관광객들의 이목을 받고 있다.

공주=정상범기자

“세종시 공사현장 관리감독 ‘엉망’”

“실제로 내년부터는 위성도로 옮겨가는 수도권의 젊은 층을 대전 역세권 주변으로 유입시키는 운동을 할 계획”이라며 “역세권 개발이 단순한 환경개선을 넘어 인구유입과 경제 활성화 등 도시재생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이와 관련해 “실제로 내년부터는 위성도로 옮겨가는 수도권의 젊은 층을 대전 역세권 주변으로 유입시키는 운동을 할 계획”이라며 “역세권 개발이 단순한 환경개선을 넘어 인구유입과 경제 활성화 등 도시재생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나다”라고 귀뻐했다.

지난 주 목요일에는 세종시청 앞의 파크종합건설현장의 최상층에서 마감공사를 추진하면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상황이 본보 기자의 눈에 띄어 카메라에 담겼다. <본보 26일자 3면 보도>

또한 스마트브 공사현장에서는 인도양쪽에 자재와 장비를 적재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도로에 설치해 버젓이 사용하는 배짱까지 보여 바로 앞에 있는 세종시의 공권력을 무색케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세종시가 공사현장 단속을 게을리하거나 불법공사현장의 단속을 외면하지 않고서는 시청 앞에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고개를 가로뚫었다.

<본보 26일자 1면 보도>

공사현장이 많은 관제로 세종시청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은 이 해가 가지만 세종시민과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인도를 피해서 사람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물건이 걸려서 넘어지는 인사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세종시청 담당공무원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므로 불법공사현장의 단속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김정환기자

정부 3.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내 나이에 아들 딸이 생겼습니다

“정성을 다해 내 아들까지 잘 키워주세요 잘 행복합니다”

“자식들도 하기 힘든 일을 따뜻한 손길로 보살펴 주시면 정말 든든합니다”

“지배노인장기요양 서비스까지 있으니 정말 힘이 됩니다”

“내 아바지 어머님께 잘 모시려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당신의 아들 딸이 됩니다”

대민국민 이르신이 행복할 때 끼치 당신의 아들 딸이 되는 호나눔이

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더 많은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혜택

- 자기급: 병문안,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 현금급여: 도서 복지 기구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월 15만원 지급
- 시설급여: 시설요양 서비스

급여아용 본인부담

- 요양대상자: 시산20%, 제과 10%(단,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장애인대상자: 50% 경감대상자: 10%, 제과: 7.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액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청년일자리 창출 · 유망중소기업 육성 역점”

장시성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불황으로 대전지역 경제가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일부 중소기업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청년 실업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개선과 국제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장시성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취임이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지역 항토기업들의 마케팅지원 등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시성 원장에게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취임하신지 6개월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우리 진흥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제반지원을 통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행복한 일자리창출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아야말로 대전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만 최근 들어 국내·외의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맞물려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등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원상회복에서 느끼는 무게감이 더 커집니다. 이에 따라 기업체들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 나가는 한편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계획된 각종 사업을 착실히 진행하여 활기찬 대전경제 실현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 시민들에게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조금 낯선데요.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소개해 주시죠.
우리 진흥원은 지난 1998년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설립된 이후 2012년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대전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건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주로 자금과 기술부족, 그리고 판로개척 및 인력관리 문제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진흥원은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상용화 지원과 마케팅지원 및 시민들의 일자리를 위한 창·취업 지원업무에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원장 취임 후 해외 통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인력을 전진 배치하는 한편 통상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역점 사업은 무엇인지.
중소기업의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4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째 감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 대상기업 후보군 육성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과,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및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유망중소기업 Global-up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기업성장을 위한 마케팅지원사업 강화입니다. 국내 판로지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통상지원을 위해 중국의 남경과 심양 그리고 일본 후쿠오카에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단 및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수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동구 정동 일원의 인쇄 제조업 집적지를 활용 '소공인특화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소공인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와 기존사업자들에게 맞춤형 경영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성공창업 비즈니스를 위한 교육지원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넷째는 '맞춤형 창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기존 일자리지원센터를 '청년인력관리센터'로 확대하여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지역의 대학생과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창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의 역할과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 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성장의 디딤돌이 되어 활기찬 대전경제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사업비 확충에 주력하고, 경제의 핵심주체인 청년 등 대학생의 직업능력개발과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Good-job 행복드림버스는 대전시의 대표적인 현장 밀착형 취업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동안에는 구직자가 취업 지원기관을 찾아가서 제한된 서비스를 받았으나 본 서비스는 대형버스를 이용하여 면접과 상담이 가능한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시·공간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구직자와 구인업체 지원을 위해 대전시 구석구석을 찾아가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



니다. 또한 '대전일자리 토크(Talk)'은 누구나 일자리와 채용이 필요할 때 손쉽게 사용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일자리 매칭을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스마트폰 전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앱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1:1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일자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지역 우수 중소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들 업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최근 우리지역의 일부 중소기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는 업체의 투자기회 판로·마케팅 확보와 지역 내에서 확장·이전해 나갈 생산기반 공간의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업체의 이탈방지를 위해서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시설투자시 필요한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타지역의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고 계셨는데요. 가장 보람 있던 일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 37년간을 공직에 몸담아 왔습니다. 국가와 민

족을 위해 작은 일이나마 족족을 남긴 것에 대해 자부심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람이라면 지난 2009년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시절 대전 무역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인근에 선사유적지가 있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처리가 되지 않아 건립이 불가함에 따라 문화재위원들과 밤낮도록 토론하며 이해 설득시켜 합당한 논리를 통해 대전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역회관 건립이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관철 시킨 점은 그였을 오가면서 지금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또한 시 국장으로 있으면서 대전문화재단과 대전복지재단을 설립하여 대전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대전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봅니다.

아울러 대전문화재단을 개소하는 한편, 중구 부구청장으로 재직시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하여 효문화 중심도시로서 대전을 고양시켰으며, 특히 뿌리공원과 족보박물관, 효문화지원센터를 비롯 건립중인 효문화진흥원을 포함하여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으로 '효! 월드'를 선정하고 엠블럼을 기획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마친 것에 대해 보람이라고 봅니다.

특히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2001년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재직시 몽골국의 21명 민선도지사를 초청하여 2주간 국내연수를 추진한 것으로 봅니다.

한 국가의 도지사 전부가 오는 사상 유래가 없는 연수를 기획 추진하면서 고려말 몽골 침략으로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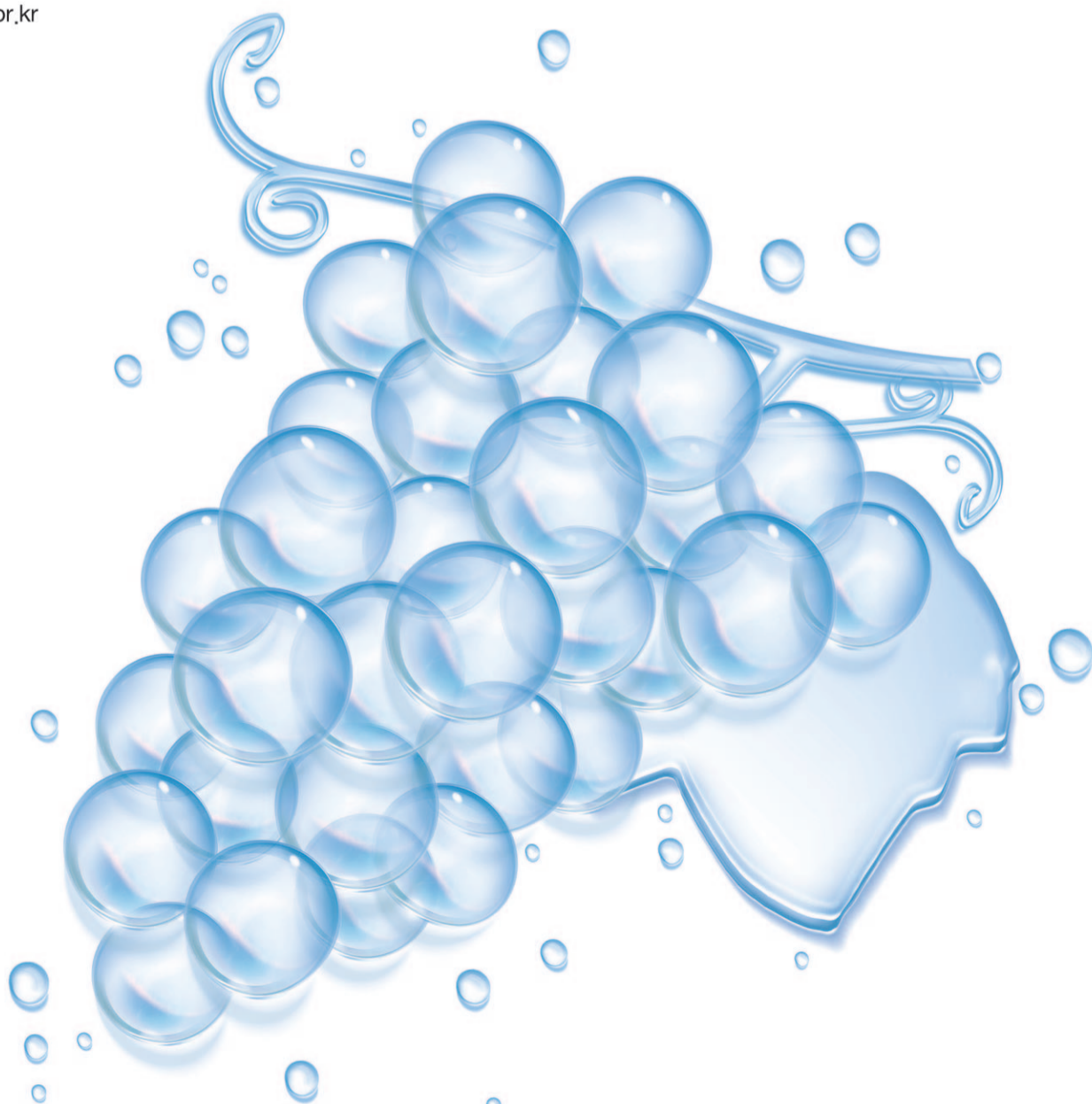
소국인 우리 선조들이 겪었을 엄청난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몽골을 뛰어넘는 우월적 입장에서 그 옛날 우리를 지배했던 다루기치의 후손인 몽골 도지사들을 연수시키는 것이 그 원한에 대한 일종의 복수심도 작용하기도 하였 습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중구 부구청장 재직시 문화회를 종교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앙로역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전주 한옥 마을처럼 실개천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사업주들의 반대로 일부 모양만 갖춘 미완의 사업으로 끝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진흥원은 무한경쟁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생력을 키우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야말로 대전경제를 일으키는 구심체이며, 대전경제 발전의 원동력이기에, 급변하는 경영 환경속에서도 튼튼한 성장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결같은 자세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존중하며, 사업 현장을 발로 뛰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대전경제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성과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담= 이정복 정치행정부장 · 정리= 김정환 기자

<http://www.kwater.or.kr>



신선하고 맛있는 물!

언제 어디서든 깨끗한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건강한 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물 전문기업 K-water!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물을 만듭니다



공주시-(주)에스엠테크 기업 투자유치 협약 맺어

기업투자유치 촉진위원회 열어... 올해 20개 기업 등지 틀어고용 창출효과 거둬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27일 공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주)에스엠테크 대표이사 명홍식과 기업 투자유치 협약을 맺고 기업 투자유치촉진위원회를 개최 그동안의 기업유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에스엠테크는 월미 2농공단지 내 9,994.4㎡ 부지에 2018년까지 총 55억원 을 투자, 시멘트 분쇄조제 첨가제, 시멘트 기능성 첨가제, 폴리우레탄 합성수지 생산을 위한 설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날 열린 공주시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올해에 만 총 20개 기업이 공주에 등지를 틀어 1,286억원의 기업투자를 877명의 고용창



출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9개 기업과는 1069억원의 기업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 앞으로의 기업유치 전망을 밝게 했으며 9월부터는 투자자문가를 비롯해 기업투자유치 촉진위원, 출항인사 등 다양한 채널을 기업유치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서도 기업투자유치촉진위원들이 연고가 있는 기업체를 함께 방문하는 한편 기업이전 및 투자정보 등에 대한 동향을 사전 파악해 제공하는 등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오시덕 시장은 이날 "오늘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에스엠테크가 우리시에 등지를 틀고 내년에 성장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기업 투자유치촉진위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유망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ater-당진시 위기대응 실무협의회 열려

위기상황 발생시 상호 협력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 도모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6일 관리단 상황실에서 당진시의 관계직원들과 함께 수돗물 공급 중단 등 위기상황 발생시 상호협력에 의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지난 2012년 양 기관이 체결한 「수돗물 공급 위기대응 상호협력 협약」을 실천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는데, 보령댐의 용수공급량 부족을 대청

댐 계통으로 변경하여 해소하는 방안 및 배수시간 비상연계관로 운영방안 등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다.

아산관리단 조재홍 단장은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수도사고 발생 등 비상 시에도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롯데백화점 대전점 가을 패션리더로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강재욱)은 다양한 가을상품 행사를 마련해 가을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맞이한다.

다음달 6일까지 상품군별 롯데상품권 증정 시은행사가 진행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제품과 가구, 주얼리, 시계, 모피, 해외명품 상품을 당일 100·200·300·500·1000만원 이상 구매시 각 롯데상품권 5·10·15·25·50만원을 증정하고, 설화수, 헤라, 오뚜기, 후, 슝 등 1층 화장품 매장에서 당일 15·30·60·100만원이상 구매시에는 각 롯데상품권 1·2·4·7만원을 증정한다.

9층 특설매장에서는 '블랙야크vsK2 라이벌전' 행사와 '레저 가을상품전'이 펼쳐진다. 블랙야크 티셔츠와 아이스엣지 다운을 각 8만9600원과 39만7000원에, K2 바람막이 재킷을 11만3000원에, 바지를 8만5000원에 선보인다.

그리고, 노스페이스, 밀레, 라푸마가 참여하는 '레저 가을상품전'에서는 티셔츠, 경량다운재킷, 고어 트레킹화 등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만나 볼 수 있다.

8층 행사장에서는 '캐주얼 여름상품 마감전'이 열린다. FRJ 청바지를 4만 9000원에, 플렉스 티셔츠와 베이직하우스 여성 슬랙스를 각 7500원과 3만9900원에 판매한다.

5층에서는 '듀풍 셔츠 장립 22주년 기념' 특별행사가 진행된다.

스페셜 기프트 세트로 셔츠&넥타이 세트를 12만원과 22만원에 판매하고, 12만원이상 구매시에는 공기청정기, 듀풍 셔츠 교환권(15만원), 듀풍 양말(2족) 등을 경품으로 증정하는 100%당첨 스크래치카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1층 행사장에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가을패션 총집합 '스트리트 상품전'이 전개된다.

송병배기자

올해 대전농협 상호금융 마케팅 강화

농협대전지역본부(본부장 박승현)는 27일 중구 선화동 대전지역본부 10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농·축협 지점장 및 간부직원 110명을 대상으로 "2015 하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방향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추진 교육은 2015년 상반기 상호금융 사업을 분석해 진단하고, 2015년 하반기 상호금융 사업추진 목표 달성 과 견전결산을 위한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6년 연속 이어져오는 대전농협 상호금융의 탁월한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교육시간도 가졌다. 대전농협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6년 연속 0%대로 전국 17개 시도지역본부 중 최고 수준이며, 2015년도 5월말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약 0.8%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전농협 상호금융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건전성을 6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국내의 경제부진 상황으로 단기

내 뚜렷한 회복 가능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농협 상호금융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대전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호금융 소비자보호의 권익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고 상호금융 소비자보호에 대한 임직원의 마인드를 확립해 고객 신뢰도 향상 및 농협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상호금융 소비자보호 강령" 선포식을 실시했다.

송병배기자

온양온천 시티투어 가을 코스 개편

티켓 한장으로 가을의 정취 물씬 나는 아산으로



아산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온양온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가 가을을 맞아 코스를 세단장하고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시티투어는 온양온천역에서 출발해 충남 아산 근교의 여행지를 버스 타고 관람하며 특히 시티투어 전담가이드가 동행하며 주요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곁들

여 한눈에 아산을 둘러볼 수 있는 관광상품이다.

관광코스는 요일별로 상이한데 화요일과 일요일은 아산신테마코스, 수요일과 금요일은 레일바이크 코스, 목요일과 토요일은 초록힐링코스를 운행한다.

시티투어의 대표적인 관광지로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외암민속마을'과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 '현충사', 그리고 전국 아름다운 가로수길 10선에 선정된 바 있는 '곡교천 은행나무길', 숲길이 완만해 삼림욕에 적합한 '영인산 휴양림' 등 아산의 다채로운 모습을 관람할 수 있다.

탑승료는 요일별, 연령별 상이하며 중식과 개별 관광지 입장료는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정원 초과인 경우 예약자가 우선 탑승하므로 선예약이 필요하다.

기타 온양온천 시티투어 예약 등 문의사항은 홈페이지(<http://citytour.asan.go.kr>) 혹은 전화(관광안내 대표전화 : 1577-6611, 관광안내소 041-540-2517)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리량주기자

한화토탈 지역 청소년들과 '희망' 나눴다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에 위치한 한화토탈이 등 2015 한화토탈과 함께 하는 '희망나누기' 사업비 전달식과 평가회를 가졌다.

한화토탈의 '희망나누기'는 2010년 7월부터 지역에서 소외받기 쉬운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한화토탈은 이번에 전달한 3천만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2억2천만원을 서산시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왔다.

희망나누기는 자원봉사자 멘토 50명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멘티) 51명과 1대1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스킨십을 쌓는 것은 물론 학습지도, 문화체험, 건강검진, 체험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일방적인 멘토링사업과 차별화한 체험활동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자아를 확립 하는데 효과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화토탈은 '희망나누기' 사업과 더불어

어 청소년들과 지역 학교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매년 대학에 입학한 지역 우수인재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서명고등학교, 대산고등학교, 대산중학교 등 대산공립인근 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인근 공군부대 소속 장교들이 선생님이 되어 참여하는 <반딧불이 공부방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임직원 가족들로 구성된 주부운영위원회도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게 바른 먹거리를 알린다는 취지로 다양한 음식을 함께 만들고 식습관 교육을 가르치는 '행복한 밥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화토탈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십 년, 이십 년 후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며 "앞으로도 서산시 청소년들에게 꿈과 미래를 심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산=김정환기자

지어...선약삼 지사 및 체인점 모집

- 주방장이 전혀 필요없음
- 간편한 요리
- 소자본 창업가능 66㎡이하 환영
- 업종전환환영
- 선약수로 재배한 선약삼과 장어의 조화
- 관저, 선화, 전민, 송촌점 오픈
- 국내산 100% 민물장어만 취급

지어...선약삼 체인본부

☎ 011-531-3535



논산소방서, 엄사면 광석1리 "화재없는 안전마을" 지정 논산소방서(서장 류봉희)는 지난 27일 오전, 엄사면 광석1리를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당진꼰, 학교폭력예방 하이파이브 캠페인 전개 관내 전 학교가 개학과 함께 신학기를 시작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하이파이브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은 신학기 초 폭력 없는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15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릴레이형식으로 진행된다.



온양4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의 개최 이천시 온양4동 청소년지도협의회(위원장 차민철)는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6일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청소년지도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방안을 모색했다.



청양어린이집, 119소방동요대회 꼭 우승할거예요!! 청양소방서(서장이광성) 관내 청양어린이집은 지난 27일 청양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제7회 충남119소방동요경연대회' 참가를 위한 행 연습을 가졌다고 밝혔다.



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나서 공주경찰서(서장 이안복)는 8월 27일 공주여중 정문에서 학교전담경찰관, 지역경찰, 학교선생님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학교폭력 예방 전단지 등을 배부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천안동남소방서,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지난 26일 병천면에서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해양경비안전연수센터 직원 및 병천119안전센터 소방공무원 등 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 및 사고수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서산 도계장 증설 주민갈등 확산

진정서 작성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총리실 등 제출할 예정

서산시 고북면 가구1·2리, 기포1·2리, 남정3리 주민 150명(반추위집계)이 27일 ㈜신우에프에스 정문에서 도계장증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신우에프에스 증설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최옥용)에 따르면 일부 찬성했던 주민들도 현재 반대로 돌아서고 있다고 주장해 증설반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반추위는 27일 집회가 끝나는 대로 진정서를 작성해 반대 서명서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26일 본보가 보도한 내용을 두고 ㈜신우에프에스 측은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긍정되는 여러 번 열었고 공장규모가 10배 이상 증축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최신식 시설을 구입해 지금 도계 6천수 보다 약 1.5배정도 도계

설명을 덧붙였다.

그리고 운송 중에 날리는 닭뿔과 닭 비늘이 공장에서 날리는 것 처럼 오해를 하고 있다며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다.

특히 고북중학교의 경우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다는 공문까지 받았으며 장학금까지 지급하는 지역과 함께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민과의 대화를 계속 제안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도 토로해 서산시의 가교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신우에프에스는 축산업(도계업) 도내 1위 업체로 최근 공장증설 승인이 나면서 주민과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산=김정환기자

대성학원, 채용비리

연루 교사2명 직위해제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회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교사 2명을 직위해제했다.

2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성학원은 지난 23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채용비리 관련 연루된 교사 2명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교사에 대해 기소된 교사는 모두 18명이다.

시교육청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나머지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등도 추가 요청하기로 했다. 또 대성학원 소속 5개 학교는 신규교사 채용시 교육청 위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daejeontoday.com

직무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전고용노동청 - 대전상장법인협의회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본부

대전고용노동청(청장 김영국)은 27일 대전 유성구에 소재한 (주)에이비에서 대전고용노동청-대전상장법인협의회-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3자간 '일·학습병행제 및 직무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전지역 내 '일·학습병행제' 등 스펙보다는 능력에 따른 채용·보상·인사관리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상호간 협력하고, 지역 내에서 NCS에 기반한

직무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협약을 통해 대전고용노동청은 ▲기업이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능력중심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가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 대전상장법인협의회 회원기업은 ▲직무능력중심 채용문화를 지역에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영국 청장은 "능력중심 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대전상장법인협의회와 같은 역량 있는 기업들이 일·학습병행제와 능력중심 채용 확산에 함께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산업계와 지방고용노동청이 협력하여 지역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확산 모델을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금산소방서, 교통사고 인명구조 활약

충남도내 발생량 급증... 도농기원, 1세대성충 산란 전 방제 당부

금산소방서(서장 조영환)는 26일 금산군 금성면 하류리 학생유령정 인근에서 금산방향으로 차량 단독 교통사고 지방접수 후 즉시 현장 출동하여 요구조사 2명을 구조했다.

금산소방서 구조·구급대원 사고현장 도착한 바, 1톤화물차가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화물차량 운행을 담당하였고, 구조장비의 100% 가동 상태 유지를 통해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형섭 구조대장은 "교통사고는 대부분 과속 등 운전자들의 조급함에서 비롯돼 귀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당부하였고, 구조장비의 100% 가동 상태 유지를 통해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농협중앙회 공동, 지방소비자 권익증진위해

당진시 '소비자 교육 및 이동상담' 실시

한국소비자원은 27일 당진시 교내에서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충남지역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및 이동상담'을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방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각 지역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폭넓은 협업을 통해 정부3.0 기조에 부응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을 시작으로 소비자생활 관련 피해상담으로 이어졌다.

또한 자생한방병원에서 건강검

진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자동차에 급유된 석유의 진위 여부검사를 실시했다. 이밖에도 자동차 및 가전제품·휴대폰 제조사가 동참하여 자사 제품에 대한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당진지역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대전광역시에서 대전지역을 개조하여 대전·충청·세종지역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선기자

아산소방서 '가을철 등산목 안전지킴이' 운영



아산소방서(서장 이종하는) 가을철 산행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등산객이 안전하고 즐거

운 산행을 할 수 있도록 9월 5일(토)부터 광덕산(송악면 강당리 소재)과 영인산(영인면 아산리 소재) 등에서 '등산목 안전지킴이' 활동

을 재개한다.

이는 가을철 산악사고 발생에 대비해 산악사고 발생 시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이용한 등산객 안전조치 및 신속한 대처로 산악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 현장간이의료소 설치·운영 ▲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산로 구간에서 등산객들을 위해 휴양, 당초 측정 등 기초 건강 체크 ▲ 실족이나 탈진, 호흡곤란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응급처치 ▲ 안전한 산행을 위해 각종 산악사고 예방·홍보 ▲ 사고가 잦은 등산로 유동순찰 등이다.

아산=리명주기자

'알레르기성 비염'... 봄보다 가을에 주의

9월 평균 진료인원 115만명으로 3월보다 30% 많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병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 최근 5년간(2010~2014년)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 진료인원은 최근 5년간(2010~2014년) 9월 평균 진료인원이 114만6천명으로 전월보다 2배 이상, 3월에 비해 30% 이상 증가를 보였다. 2014년 기준 진료인원은 약 635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32%가 증가했으며, 특히 10세 미만 유·소아가 전체 진료인원의 24.3%(4명 중 1명)를 차지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노영수 심사위원은 "알레르기성 비염은 원인인자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며, 개인마다 원인이 다르므로 평소 자신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인자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병배기자

알바생 49.2% “돈 없어 여름휴가 포기”

대전교육청 ‘학교 안전교육 자원지도’ 배부

“대전 지역 안전체험교육 정보를 한 곳에”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구성했다. 무엇보다 '학교 안전교육 자원지도'를 제작함에 있어 충남도시가스 외 46개 기관이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7개 표준안에 따른 60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적극 동참하여 더욱 의미가 깊다.

'학교 안전교육 자원지도'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전달되었으며, 이를 통해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필요로 하는 안전교육 분야의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학기관, 상담전문기관, 봉사단체 등에 교육을 신청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사회기관과의 협력이 의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학교 현장의 체험 중심 안전교육이 활성화되어 학생들의 안전 의식이 고취되고 안전 관련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 기대된다.

김정환기자

<알바천국> 설문조사, 알바 시급이 낮을수록 휴가 계획 감소하는 경향 보여

여름 휴가 막바지에 접어든 요즘, 어려운 경제상황에 휴가는 포기한 채 일에 매진하는 알바생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쓸쓸함을 더하고 있다.

알바천국대표 최인성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알바생 1,242명을 대상으로 '2015 알바생 여름휴가계획'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60.1%)만이 올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휴가계획이 없는 이들 중 절반 가까이되는 48.2%가 경제적 여유 부족으로 휴가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생들의 휴가계획은 현재 받고 있는 시급이 낮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저시급인 5,580원 내외를 받고 있는 알바생의 경우 58.7%가 휴가를 계획한 반면, 10,000원 내외의 높은 시급을 받는

알바생은 75%가 휴가를 계획, 최저시급을 받는 이들보다 약 16.3%P나 높았다.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 답한 746명은 여름휴가 일정으로 평균 3.7일을 예상했으며, 2-3일에 절반 이상인 57.2%가 집중됐다.

휴가일수 역시 시급의 영향을 받아 시급이 높을수록 휴가일수가 증가했다. 최저시급(5,580원) 내외로 알바비를 받는 경우 3.3일의 가장 짧은 휴가를 계획했으며, 10,000원 내외의 높은 시급을 받는 경우에는 4.4일로 하루 더 긴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알바생들은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 평균 35만원의 비용을 지출할 예정이었다. 또한 받고 있는 시급에 따라서는 휴가비용에 차이를 보였다. 최저시급(5,580원)

내외로 알바비를 받는 알바생의 평균 예상휴가비용은 29만 5천원으로 가장 낮은 반면 10,000원 내외의 높은 시급을 받는 알바생들은 이보다 약 13만 4천원 높은 42만 9천원의 휴가비용을 사용할 것이라 답했다.

구체적인 휴가 계획으로는 절반 가까이 되는 47.2%가 제주도를 제외한 부산, 동영 등의 국내여행'을 다녀 올 것이라 밝혔다. 이어 ▲'가족 및 친구와의 만남'(15%), ▲'해외여행'(12.1%), ▲'제주도 여행'(7.4%), ▲'취미 및 문화활동'(6.3%), ▲'방콕'(4.9%), ▲'이직준비'(2%)순이었으며, 미정이라 답한 이는 5.2%에 불과했다.

반대로, 올해 여름 휴가 계획이 없다 답한 49.6명에게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들

중 한 명(49.2%)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를 1위로 꼽아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휴가계획을 접은 알바생들이 상당수임을 추측하게 했다.

이어 '바쁜 일상에 쉬기 어려워져서'(16.9%)와 '알바하는 곳에 양해 구하기 힘들어서'(10.4%)와 같이 알바생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이유가 각각 2.3배에 올랐다. 그의 '딱히 휴가가 필요없다 생각해서'(6.6%), '휴가기간 같이 보낸 사람이 없어서'(4.6%), '부모님 및 주변 눈치가 보여서'(2.2%)순으로 답변이 이어졌다.

특히 적은 시급을 받는 알바생일수록 '경제적 여유 부족'을 이유로 휴가를 포기하는 이들이 많았으며, 최저시급(5,580원) 내외를 받는 알바생이 53.4%로 가장 높았다.

이정복기자



논산중앙초, 여름방학 NIE 캠프 성료

논산중앙초등학교(교장 김용진)는 여름방학 중 학생들이 신문과 독서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자세를 키우기 위해 여름방학 독서NIE 캠프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여름방학 독서NIE 캠프는 3~6학년 희망자 35명을 신청 받아 8월 18일 오전 동안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교육 선생님들과 함께 신문을 활용한 체험 캠프를 실시했다.

학생들이 신문의 구성요소를 알아보고, 신문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독서 및 글쓰기 활동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문 일기쓰기를 통해 현실 속의 다양한 사건이 담긴 신문을 꾸준히 읽어 나가며, 신문 속에 담긴 핵심 내용과 모르는 단어나 새로운 지식을 나의 생활과 학습에 구체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논산=한대수기자



당진 호서중 관악부, 제13회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 수상

‘아름드리 오케스트라’의 금빛 선율

당진 호서중학교(교장 조성춘) '아름드리 오케스트라' 관악부가 지난 25일 열린 제13회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춘천시가 주최하고 춘천전국관악경연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에는 초등부 19개 팀, 중등부 10개 팀, 고등부 15개 팀 등 44개 팀이 참여했다. 대상 팀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수여되는

것을 비롯해 총 12개 단체 및 개인에게 총 1,90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중등부 경연에서 호서중 관악부는 박형석 교사의 지휘에 맞춰 행진곡 'Livdy Avenue March'와 자유곡 'Virginia'를 연주해 그 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전국 무대에서 유감없이 발휘하며 관객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당진=최근수기자



아산복수초, 자유탐구발표 통한 과학적 사고능력 기르기 아산복수초등학교(교장 김성열)에서는 지난 25일,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탐구중심의 수업 개선을 통한 행복한 교실문화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과학탐구 지도방법 관련 자유탐구주제발표를 실시했다.

세종시교육청·일본 동경한국학교 업무협약

고국(故國)의 정체성 찾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누기로



올해 겨울방학부터 세종시의 귀국학생들과 동경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일본교포 3-4세 학생들이 한국어 등 고국(故國)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누기로 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27일 일본 도쿄에 소재한 동경한국학교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동경한국학교(교장 김복영)와 상호교류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직원 모두 5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지난 26일부터 3일 간의 일정으로 한민족 정체성 교육 교류 협력을 위해 일본 도쿄를 찾았다.

최 교육감은 방문 첫날인 26일, 동경한국대사관으로부터 일본에서의 한국교육

의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을 찾아 양 도시 간 교육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그리고 나서 충청도민회를 찾아 회원들과 '세종교육과 귀국학생 지원'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다음 날인 27일에는 이번 방문의 핵심인 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동경한국학교를 찾았다. 먼저, 최 교육감은 학교 학부모연합회를 대상으로 '학교혁신과 세종교육'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 후, 김복영 교장과 한민족 정체성 교육 교류 협력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간 우호적이고 호혜적인 정신에 입각해 체험 학습 및 교육정보의 상호 교류 등 교육혁신과 발전 그리고 글로벌인재양성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세종=이정복기자

청양교육지원청, 학교급식관계자 연수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자)은 27일 청양 관내 초·중·고등학교 조리사 및 조리원 약50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관계자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2학기 개학과 동시에 급식이 재개됨에 따라 여름방학동안 느슨해진 긴장감과 경각심을 제고하여 학교급식 위생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복한 급식현장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학교급식소에서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위생사고의 사례와 예방요령에 대해 김보영 주무관의 설명과 한국행복영

생교육원 오정화 강사의 '학교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및 직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스토레칭'으로 구성됐다.

김은자 교육장은 "그 동안에 급식현장에서 숨은 노고에 대하여 감사하며, 이번 연수를 통해 조리사, 조리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즐겁게 일하고 급식 위생·안전 관리에 내실화를 기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만들기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했다.

청양=정삼범기자



수확의 즐거움과 농업인들께 감사의 마음 되새겨 애산교육진흥청 용동초등학교(교장 조원희)는 26일 오전 9시부터 1시간동안 희망 학부모와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덧밭 가꾸기' 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산교육지원청, 이회원 교육장 이임

꿈과 희망으로 행복이 가득한 교육의 요람을 만든다



금산교육지원청 제27대 교육장으로 2013년 9월부터 재임한 이회원 교육장은 오는 9월 1일자로 천안 청수초등학교로 영전을 한다.

이회원 교육장은 1977년 대전여자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공주시대부고 등 여러 학교에 교사로 재직하였고, 충남도보령교육청·충남도교육청 장학사, 학업성적·교육과정 팀장,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혁신기획담당,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연수부장, 충청남도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 장학관을 역임하면서 전문직의 길을 걸어왔으며, 논산중학교 교장을 거쳐 2013년 9월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하였다.

금산교육지원청에 부임한 이래 학교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특별전 열려

다음달 1일부터 화폐박물관... 무궁화 소재 이은정 서양화 20여점 선봬



경력을 가진 이은정 작가의 7번째 개인전이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꽃을 주제로 한 서양화 작품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이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쉽게 지나치는 무궁화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화동, www.komsco.com)는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화폐박물관내 유성구 소재 특별전시실에서 이은정 작가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특별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유수 미술선 및 공모전 다수 수상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라는 뜻을 지닌 무궁화無窮花는 화려하게 피었다가 금방 저버리는 벚꽃 및 오렌지 꽃의 개량에도 불구하고 한 달을 피지 못하는 장미와는 달리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묵묵히 꽃을 피운다. 은근하고 끈기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을 투영해 나라의 상징꽃으로 여긴 선조들의 슬기로움을 엿볼 수 있다.

20여종의 무궁화 중 흔히 볼 수 있는 20여종의 무궁화를 캔버스에 옮긴 작품으로, '계월향', '님보라', '신태양' 등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송병배기자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서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2층 제1교육실에서 접수 진행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뤄진다.

원서 접수는 고3 학생의 경우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는 출신 고교에서 이뤄지며, 검정고시 합격자 및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다.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르다면 출신 고교나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중 한 곳을 선택해 가면 된다.

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면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

서산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 2층 제1교육실에서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서산=김정환기자

TV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 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Time, Program Na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Time, Program Na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Time, Program Na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TV: 하이라이트

▲어머님은 내머느리 (SBS오전8시30분)



수경은 경숙이 싸준 도시락을 들고 주희장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간다. 병실에 와 있는 수경을 본 경민은 난감해하고, 수경에게 그만 와도 된다고 거리를 준다. 한편, 성태에게 프리포즈를 받은 현주는 마지막으로 정수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가는데...

▲그래도 푸르른 날에(KBS2 오전9시)

덕희(윤해영)의 구속 소식이 민주정(최태는) 속상해하고 인호(이해우)는 영희(송하은)를 만나 미국으

케이블 영화

▲완득이 (28일 CON 오후9시00분)

열 여덟, 인생 최대의 적수를 만났다! 남들보다 키는 작지만 자신에게만은 누구보다 큰 존재인 아버지와 언제부터인가 가족이 되어버린 삼촌과 함께 사는 고등학생 완득이.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환경에 공부도 못하는 문제아지만 싸움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가진 것도, 꿈도, 희망도 없는 완득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딱 하나 있었으니, 바로 담임 '똥주'가 없어지는 것! 사사건건 자신의 일에 간섭하는 데다 급기야 옆집 옥탑방에 살면서 밤낮없이 자신을 불러대는 '똥주'. 오늘도 완득은 교회를 찾아 간절히 기도한다. "제발 똥주 좀 죽여주세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유독 완득에게 무한한 관심을 갖고 있는 똥주는 학교에서는 숨기고 싶은 가족사와 사생활을 폭로하여 완득을 창피하게 만들고...

로 유학을 간다고 이야기한다. 한편 은아(정미연)와 함께 여행을 떠난 용택(김명수)은 식사 중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자리에 은아가 없음을 발견하는데...

▲이브의 사랑 (MBC 오전7시50분)



송아(윤세아)는 도망치듯 아산을 달려오지만 배가 아픈지 휘청거리다 주저 앉는다. 간신히 병원에 도착하지만 하혈이 심해 수술을 하게 되고 결국 유산을 한다. 강모이(재환)와 송아는 절망하는데...

▲캡틴 필립스 (29일 채널CGV 오후10시00분)

소말리아 해적단의 기습으로 생존을 위협받게 된 상항,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인질이 된 리처드 필립스 선장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협상을 벌이는 이야기로 그려진 작품.



소말리아 인근 해상, 리처드 필립스 선장이 이끄는 화물선 엘라베 마호가 해적의 공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다. 필립스 선장은 순간의 기지로 해적들의 1차 공격을 막는데 성공하지만 해적들은 곧 엘라베마 호를 점령한다. 선원들을 대피시킨 채 홀로 해적들과 대치하는 필립스 선장. 숨막히는 경계의 팽팽한 심리전 속 필립스 선장은 19인 선원들을 대신하여 홀로 해적들의 인질이 되는데...! 바다 한가운데, 생존을 건 협상이 시작된다!

청양군 운곡면, 제4차 분회별 게이트볼대회 열려

10개 읍·면 분회에서 100여명의 선수들 참가



이날 대회 결과 대치면 분회가 우승을 차지하고, 목면 철마분회가 2위, 청양읍 우성분회와 남양면 분회가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한편 노진호 운곡면게이트볼협회 회장은 "가을의 길목에서 바쁜 신중에도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2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게이트볼대회에 회원들의 많은 참여와 선전을 바란다"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아산시 여성회관, 제11회

흙사랑 전시회 개최

아산시 평생학습문화센터 여성회관(관장 오차남)의 도자기반 동아리인 '흙사랑' (회장 유경선)은 '제11회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달 9일부터 15일까지 여성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며 이번 전시회는 흙사랑 회원 27명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전시회 작품은 바자회를 통해 판매 후 수익금의 일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들과 지역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여성회관 관계자는 "흙사랑 회원분들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아름다운 작품들을 아산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 판매된 수익금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이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아산=리광주기자

청양군게이트볼연합회(회장 유성현)가 주최하고 운곡면게이트볼협회(회장 노진호)가 주관하는 2015년 제4차 분회별 게이트볼대회가 지난 26일 운곡면 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청양군 10개 읍·면 분회에서 1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평소 갖고 있던 실력과 기량을 맘껏 펼쳤다.



논산 강경중, 꿈꾸리기가 '심청전' 공연 강경중(교장 박병동)은 학생연극 동아리 꿈꾸리기가 지난 학기동안 방과후에 틈틈이 연습한 연극 '심청전'을 논산시문화회관에서 28일 오후 2시 30분에 공연한다.



충남대,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사업 현판식



유성구, 행복 예산학교 개최



청렴윤리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 메인비즈협회와 노란우산공제 업무제휴



자충연맹 서구지회 도매 동분회경로당 위문

보령항 제2부두 석탄하역설비 화재발생 가정하여 진압훈련 실시
보령화력본부, 보령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

한국중부발전(주) 보령화력본부(본부장 유성종)는 26일 오후 2시부터 보령항 제2부두에서 보령소방서와 함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소방훈련은 보령화력본부 기술지원실 주관으로 안전품질실, 협력업체인 ㈜한진, 한전산업개발, 석원산업 등 총 1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8월 12일 중국 텐진항 국제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위험물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충남 소방본부가 대형재난 예방 및 유사사고 방지차원에서 보령화력본부로 요청해 실시하게 됐다.

이날 훈련에 앞서 보령소방서



보령항 제1, 2부두에 대한 위험물 시설 소방검사를 실시했다. 훈련은 제2부두에 설치된 석탄

소방서 출동, 화재진압 순으로 진행됐다.

통제반장을 맡은 홍훈식 연료연소팀장은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지휘소방대 각반에 수시로 임무를 부여하며, 효율적으로 화재진압을 지휘했다.

훈련 후 유성종 보령본부장은 강령에서 "현장 근무자의 신속한 화재신고와 초동조치, 소방서와의 유기적 합동으로 설비파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철저한 화재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은 백낙종 보령소방서 화재대책과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가했다.

보령=이정복기자

목원대학교 유도팀

인도네시아 카포리 컵 오픈유도대회 우승



목원대학교 유도팀은 지난 20부터 23일까지 끝내바 가당에 위치한 파테포칸 체육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카포리 컵 오픈 국제유도대회가 출전하여 단체전 우승을 달성했다.

또 이번대회 개인전 경기에 출전한 정현광(-73kg급), 강민성(-81kg급), 정동식(-100kg급) 선수와 각각 금메달을, 여자부 강주희(-48kg급) 선수와 주승희(+70kg급)가 은메달을, 남자부 최민호(-66kg) 정현광(-73kg) 정운성(-90kg)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어 출전선수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목원대학교 유도부는 1주일간 인도네시아 코파스(특전사체육부)와 함께 전국체전을 앞두고 강도 높은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올해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유도부 강병길감독은 "해외까지 나와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남은기간 열심히 훈련했다"며 "전국체전에서 목원대학교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선기자

아산시 신청면 행복키움추진단, 지역 복지 향상 위해

독거노인 생신 상차려 드리기 행사



아산시 신청면 행복키움추진단(사장나누미 회장 나용현)은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6일 관내 독거노인 가정을 찾아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위로했다.

신청면 행복키움추진단(사장나누미 회장 나용현)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파리마켓 아산 순천향대점(점주 정공철)과 한일화학 아산공장 봉사동아리 '엔젤', 무지개농원대표 박제진에서 케익과 미역국, 반찬, 화분을 각각 후원했다.

봉사자들은 어르신에게 직접 생신상을 차려드렸으며 식사 후에는 답소를 나누며 어르신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덜어주었다. 생일상을 받으신 허○○(81세)어르신은 "나 같은 노인이 생일을 기억해 주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반가는 분들이 와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 덕분에 행복한 생일이 되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등정

퇴임공무원 정부포상 전수식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 23일 오후 2시에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충남농업기술원

시설원예기술사 첫 배출



충남농업기술원 김양섭(사진) 농촌지도사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사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기술분야의 최고 인증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원예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시설원예기술사"는 시설원예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와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종합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농업분야의 최고 자격증이다.

김양섭 지도사는 지난 1997년 보령시농업기술센터에서 공직에 임문해 수경재배와 관비재배, 복합환경관리에 대한 과학영농 기술보급에 전념해왔다. 특히 김 지도사는 지난 2008년 도농업기술원으로 선임,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농업인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는 베테랑 지도사로, 이번 시설원예기술사 자격 취득을 통해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도내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도사는 "시설원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적환경관리를 통한 고품질생산과 생력화가 필요하다"라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정보통신과 농업이 결합된 스마트농업 기술보급을 위해 전문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포=이지용기자

2017 FIFA U-20 천안유치기원

천안시청 축구단팬 사인회



2017 FIFA U-20 천안시 유치원 기원하는 팬 사인회가 신부동에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층점 앞에서 천안시와 (재)천안시청축구단감독(당성중), 시축구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사인회에서는 천안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소년들 3살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이집트, 미국 등 외국인들까지 약 천여명이 사인회에 참여하여 천안시민들의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을 천안에서 개최하고 싶은 염원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사인회였다.

구분영 천안시장은 "다가오는 9월 3일 FIFA 실시에 있어 천안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2017년 U-20 월드컵을 천안에서 유치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정환기자



남일 제일미곡종합처리장, 백미 이웃전달

남일면 민관협업체와 사랑 나눔 협약...쌀과 보리쌀 30포 전달

남일면 제일미곡종합처리장(대표 광영두)은 남일면 민관협업체와 사랑 나눔 협약을 맺고 쌀과 보리쌀 30포를 전달했다.

광 대표는 2006년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40포(10kg)를 기증하는 것을 계기로 많은 경로당에 전자제품 기증 및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매년 지원 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어다.

기증된 쌀과 보리쌀은 남일면 민관협업체에서 발급한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 할 예정이다. 불황과 경기 침체로 마음마저 차가워지는 현실에서 어려운 이웃과 어르신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주위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김삼=김남규 기자



청양군 정신면 · 장평면

기관 · 단체 친선배구대회로 화합의 장

청양군 정신면(면장 정성희)은 지난 26일 정산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지역민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제12회 기관·단체 친선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정산면사무소, 이장협의회, 정산면 연합 ▲정산초·중·고등학교 연합 ▲농업경영인회 ▲정산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연합 ▲의용소방대, 119안전센터 연합 ▲정산농협, 축협, 우체국 연합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연합 등 총 7개 팀 18단체 150명이 참여한 열띤 경합을 벌였다.

정성희 면장은 개회식에서 "바쁘

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선수들에게 감사드리며 짧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해 나날이 변화와 활력으로 발전해 나가는 정신인의 패기를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날 각 팀이 열띤경쟁을 벌인결과 ▲1위 농업경영인회 ▲2위 자율방범대 연합 ▲3위 학교연합이 차지했으며 농업경영인회 오미현 선수 가 최우수 선수로 뽑혔다.

청양=정성범기자

제3회 한국효행청소년 효행사례 전국경진대회



슬로건

효(孝)는 실천입니다

효행이 효순이

단기에 대한 맹세문

나는 자랑스런 원정방(단기)기 앞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사회에 봉사 잘하는 착하고 성실한 청소년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취지

-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효(孝)와 새로운 인성예절문화 창달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 및 성장 동력원으로서의 핵심적인 정신문화를 부흥하고자 함
-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웃어른 및 스승을 공경하고 효행심을 유발 하여 효행을 실천한 우수한 사례를 발굴, 널리 보급하여 일반화하기 위함
- 수상자들은 상급학교 진학 시 효와 인성예절분야에 대한 스펙(부가점)으로 활용 기대됨

참가자격

- 전국 초·중·고·대학생

원고 내용 및 규격

(내용) - 일상 생활속에서 꾸준한 효행실천으로 모범이 되는 사례

- 경료효친 생활이 내면화되어 실천한 사례
- 기타 여러 상황에서도 효행을 실천하여 모범이 되는 사례

(원고분량) A4용지 2쪽 이내
(원고규격) 여백: 위-30, 아래-20, 왼쪽-오른쪽 -25,
글씨크기: 제목 15, 글씨 12,
글씨체: 바탕체

원고 접수

- 접수기간: 2014년 09.1(화) ~ 10월 2(금) 18:00시까지 도착

- 접수방법: 이메일, 인편, 팩스 혹은 우편접수

이메일 주소: seosh1236@hanmail.net / b3s1405@hanmail.net
rhee8165@hanmail.net / kean702@hanmail.net / hih2000@hanmail.net

팩스번호: 042)536-9116, 042)536-9117

우편주소: 352-96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134-17 동명빌딩 301호

한국효행청소년단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필요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대회일정

원고접수: 2015. 09. 1(화) ~ 10. 2(금)

- 심사결과 발표: 2015. 10. 16(금)

- 사례발표 및 시상식: 2015. 11. 06(금), 15:00~16:30

※ 입선자는 개별 통보 및 다음카페; 한국효행청소년단 발표

※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는 대회 당일 사례를 발표 할 수 있음, 단, 부득이한 경우 본인이 작성한 동영상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시상내용

각급 학교별 1편씩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단체상, 지도교사상

대회 및 시상식 장소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강당

기타

작품에 소속(학교, 학년, 반), 연락처가 누락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기재바람.

*수상자는 추후 주민번호, 주소 받음.

한국효행청소년단 카페 참조(<http://cafe.daum.net/KFPYF>)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람

대표전화: 042) 537 - 9115 / 042) 582-0057

사무총장: 송경숙 (010-9403-6848)
총재: 서성애 (010-2015-8969)

주관: 한국효행청소년단

후원: 짧은생각 바른신문,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주교육대학교, 대전광역시 서구청

장원교육, 교원시니어클럽, 효()협동조합

“효는 인성예절의 근본입니다”